

미국 기독교 개혁 교단(CRC)의 기독교 학교 역사에 대한 고찰¹⁾

류기철(고신 대학교 기독교 교육과)(교육 1-3)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urvey briefly the key issues of debates and struggles in the process of Christian edu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s as the descendants of the Reformed churches of the Netherlands(Christian Reformed Church) settled in the new land of North America. They sought to take root in the new land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unique identities, Christian faith and Reformed vision through their churches. In this regard, the CRC church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Christian schools. This research, therefore, attempts to delineate the values of the church's roles in Christian education, its scope, structure and necessity, which they have emphasized and debated over 150 years in CRC history. This researcher will survey the necessity and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s in the late 19th century. Secondly, the paper will deal with the scope and relative importance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rdly, the issue of finance with regard to funding and managing Christian schools, which they continue to struggle with today, will be under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schools in CRC, this researcher attempts to offer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the Christian schools in Korea. The research of this paper is based on literature study, which includes important CRC official documents and publications such as the Church Order and Acts of Synod of the CRC.

Key Words: Christian Reformed Church, Abraham Kuiper,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chools,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1) 본 논문은 고신 대학교의 재정 지원으로 쓰여진 것임을 밝힙니다.

I. 들어가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네델란드는 칼빈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개혁교회가 학교 교육을 이끌어갔다. 18세기의 계몽주의와 19세기의 공립학교 제도의 확립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기독교 학교 유지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독교 사립학교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이로써 사립학교 교육이 법적 보장을 받고 재정 지원과 법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19세기 중반 새로운 세계인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선택한 그들은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개혁주의 세계관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이들이 미국 미시간 주와 아이오와 주에 정착하여 1857년에 만든 교단이 기독교 개혁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 이후로는 CRC로 표기)²⁾인데 그들의 역사적 배경상 기독교 교육, 즉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 고등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특별한 교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³⁾

이번 연구는 미국의 기독교 개혁 교단(CRC)의 발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북미주라는 토양에서 이민과 정착과 동화의 과정 가운데 변화, 발전해 가는 역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민자로서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신념, 신앙 그리고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개혁 교단이 기독교 학교에 대해 미국 이민 역사 가운데 강조해 온 교회의 역할에 대한 가치와 범위와 구조와 내용과 필요성 고찰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시대의 필요와 요구와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펼쳐 왔다. 본 논문은 간단하게 CRC 교단의 주요 문서를 기초로 하여 역사적 흐름을 크게 삼등분하고, 19세기 후반에 가졌던 그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의 배경과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20세기 초반에 가졌던 그들의 고민인 기독교 사립 학교 교육의 범위와 다른 사역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본 뒤에 20세기 후반에 그들이 고심하고 있는 재정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 학교 설립의 과정과 그 역사를 미국 기독교 개혁 교단의 역사를 통해 조명하며, 그 위에 기초하여 미래에 한국 기독교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II. 19세기 후반: CRC 교단 내의 기독교 학교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

2) CRC 교단은 부분적으로는 네델란드의 가뭄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분리주의자 알버투스 벤 랄티 목사의 결단으로 세워지게 된 교단이다.

3) 2006년 발행된 교단주소록에 나온 내용을 통해 CRC와 연관된 고등교육 기관은 아래와 같다. Calvin College in Grand Rapids, USA; Dordt College in Iowa, USA;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in Toronto, Canada; The King's University College in Edmonton, Canada; Redeemer University College in Ancaster, Canada; Reformed Bible College in Grand Rapids; Trinity Christian College in Illinois, USA. In addition to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y also established a number of educational agencies including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in Grand Rapids, USA; International Theological Education Ministries, Inc. in Missouri, USA; Worldwide Christian Schools in Grand Rapids, USA.

미국에서 기독교 개혁교단이 공식적으로 형성되기 오래 전부터 유럽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기독교 교육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16세기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네델란드의 몇 교단들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⁴⁾ 헤이그 총회(Synod of Hague, 1586)와 도르트 총회(Synod of Dort, 1618-1619)를 통해 학교의 행정에 대한 교회의 규범을 정했다.⁵⁾ 이 당시까지도 교회와 국가의 분립이라는 시대적 환경이 조성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델란드에서는 정부가 학교를 유지하고 후원하였고, 교회를 통해 실제적인 설립과 관리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미국 개혁 교단의 교회 헌법 71조는 17세기 도르트 총회의 21조항에서 그 역사적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당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읽기, 쓰기, 언어와 교양과목을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영성과 교리문답 교육도 책임지게 한다.⁶⁾

이 교회의 규정은 CRC 교단이 전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 내용은 개혁주의의 뿌리를 잘 보여 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회법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교육을 위한 그들의 비전이 역사 속에 열매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을 보면 이렇다. 즉 교육은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양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며 이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교육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구조적인 책임(structural responsibility)을 져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모든 지적인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

이러한 배경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실제적인 삶이었지만, 네델란드 국가 교회가 자유화의 길을 걷게 되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후 200년이 흐르면서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1834년에 국가 교회를 탈퇴하기에 이르렀고 1847년에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작하게 된다. 분리주의자이면서 목사이었던 알베르투스 밴 랄티(Albertus Van Raalte)는 국가교회에 반대하였기에 그의 가족과 40여명의 이민자들과 함께 1848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지금의 미시간 주에 있는 홀란드(Holland)에 정착하고 그곳을 미국 땅에 새운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 건설하게 된다. 그와 네델란드계 이민자들은 칼빈주의 신앙을 굳게 붙들었고, 실천적 경건 주의와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하는 것에 헌신하였다. 그들은 네델란드에서 자유화된 국가 교회를 탈퇴한 것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

4) John H. Kromminga,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 study in orthodoxy* (Baker Book House, 1949), 134.

5) Idzerd Van Dellen and Martin Monsma, *The Revised Church Order Commentary: a Brief Explanation of the Church Order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7), 272.

6) Christian Reformed Church, *Church Order and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03), 71.

7) Steven J. Koster, “The CRC and Christian Day Schools: A Short History of Principles and Practice,” *Stromata* 46 (2005), 38.

교도 거부하였다. 화란의 공립학교를 거부한 것과 같이하여 대신 국가의 후원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free” schools)을 추구하게 되었다.⁸⁾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졌던 이민자들에게는 새로운 땅에서 “자유”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비전이 큰 동기부여를 하였을 것이 확실하다. 잔 크로밍가(John Kromminga)는 자유 기독교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이민자들이 네델란드를 1847년에 떠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⁹⁾ 1846년 브룸멜캠프(Brummelkamp)와 밴 랄티(Van Raalte)는 이미 그전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천명했는데 그것은 “자신들 소유의 마을을 형성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신들 소유의 지역 마을을 형성”¹⁰⁾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교는 교회가 반드시 소유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화란 칼빈주의적 관점에 의한 기독교 교육”¹¹⁾ 이어야 했다. 여기서 미국 초기 화란 이민자들이 네델란드에서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이유 바로 그 다음으로 새로운 개척지에서 펼칠 삶 가운데 참된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이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보니 기독교 학교 설립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시급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일반적인 원리들 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 그들이 곧 깨닫게 된 것은 사립 교육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또한 네델란드에서 보다도 미국의 공립학교에 대해 자신들이 많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¹²⁾ 그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가령 예를 들어 1857년부터 1870년 사이의 총회회의록을 보면 교사 양성,¹³⁾ 화란어 교육,¹⁴⁾ 영어 교육,¹⁵⁾ 그리고 학교 교과서 출판¹⁶⁾과 같은 문제들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들이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던 이상과 새로운 땅이라는 현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가운데 변화와 조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현실과 상대하면서도 그들은 기독교 학교 운동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설립 운동을 하였는데 중요한 사건은 1870년에 CRC안에서 처음으로 교회와 학교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다.¹⁷⁾ 총회가 선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George Stob,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her schools,” *Stromata* (1955), 11.

9) John H. Kromminga,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 study in orthodox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49), 134.

10) Albert Hyma and Albertus C. Van Raalte, *Dutch Settlements in the United States*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47), 46.

11) *Ibid.*, 54

12) Harro W. Van Brummelen, *Telling the Next Generation: Educat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n Calvinist Christians School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 43.

13)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General Classis, the General Classis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1857-1870), 1861-Apr-5: Art 13.

14) *Ibid.*, 1861-Feb-6: Art 10.

15) *Ibid.*, 1864-Feb-3: Art 7.

16) *Ibid.*, 1862-Feb-5: Art 13; 1864-Feb-3: Art 7; 1866-Sep-5: Art 18.

17) *Ibid.*, 1870-Jun-20: Art 21.

학교는 교회의 그리고 교회를 위한 양육기관(nursery)이다. 따라서 각 교회는 의무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립학교에서라도 화란어와 개혁주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¹⁸⁾

여기서 미국에서 시작한 CRC 교단은 교회가 언약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근본적인 모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독교 사립학교가 더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립학교를 통해서라도 개혁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교단의 역사적 바탕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 기독교 교육을 이루어 보려는 그들의 오랜 염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1892년 이후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요 그룹이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권 영역사상(Sphere Sovereignty)과 언약사상(Covenantal Theology)의 다른 관점의 충돌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말 네델란드를 휩쓸었던 주권 영역 사상을 대변한 사람은 홀트만(Holtman)이었는데 그는 학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오로지 “교회적 연결(ecclesial contact)”¹⁹⁾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는 교회는 부모가 하는 교육에 간섭할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 당시 로버트(Robbert)가 주장한 내용은 언약 사상을 기초하여 가족과 자녀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 하는 것이며, 교육은 세례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와 부모가 서로 공유하는 언약적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교회가 그 역할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카이퍼의 관점은 국가와 교회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언약적 관점은 부모가 학교를 직접 운영하되 교회는 학교를 후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논쟁을 일단락 시키면서 미국 CRC교단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명료한 입장을 밝힌 총회가 열렸는데 그것은 1898년 총회였다. 이 총회를 통해서 CRC 교단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혁주의적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필수조건이다.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으며, 중생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녀들에 대한 언약 관계를 인정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주의 원리에 의한 기독교 교육은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의무이다. 모든 목사와 장로들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독교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만 한다.²⁰⁾

18)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1867-1879), 1870-Jun-15: Art 36.

19) Henry Zwaanstra, *Reformed thought and experience in a new world: a stud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its American environment, 1890-1918* (Kampen : J.H. Kok, 1973), 142.

20) Christian Reformed Church, *Church Order and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03), 391.

총회의 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교육은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²¹⁾ 내용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개혁주의 원리이어야만 하지 일반적인 지식이나 심지어 일반적인 기독교 지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음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행적적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는 교회보다는 자녀를 둔 부모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학교의 주요 운영 주체로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 행정적 운영에 있어서 교회와 부모가 가지는 역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98년 총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선포는 기독교 개혁교단(CRC)이 그 이후 강한 의지와 헌신으로 추구해온 기독교 학교 운동을 뒤 바침 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립학교에 대한 불만과 학부모가 주축이 된 기독교 학교 연합회의 형성, 그리고 입지가 분명한 개혁주의적,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그 이후 CRC 교단은 기독교 학교 운동을 줄기차게 일으켜 왔으며, 초창기의 기독교 학교 연합회가 발전하여 형성된 국제 기독교 학교 연합(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²²⁾을 통하여 기독교 학교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III. 20세기 초: 재정 지원 범위와 상대적 중요성

기독교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형성이 된 후에는 범위(scope)에 대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 범위란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 모든 학교를 교회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지원한다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인가 아니면 도덕적, 신앙적 지원인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면, 다른 사역, 즉 선교나 구제와 비교해서 얼마만큼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 학교를 거부하고 공립학교에 보내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치리 해야 하는 대상인가 아닌가?

1932년에 기독교 학교 교장 클럽(The Principals' Club of Christian Schools)에서 총회에 급한 공식 서류를 상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총회가 교단 내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권고하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독교 학교 운동을 위해 헌신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²³⁾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우선 재정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학비로서는 학교를 유지해 나가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며, 둘째는 기독교 개혁 교단의 현재와 미래가 기독교 학교의 존재와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²⁴⁾ 이에 대해 총회는 교단 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21) CRC 총회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독교 학교 설립과 후원을 권고해왔지만 1898년의 결정만큼 강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 1881년, 1882년, 1892년, 1898년, 1908년, 1932년, 1934년, 1936년, 1947년 등등. Christian Reformed Church, Index of Synodical decisions, 1857-2000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2001)을 참고하라.

22) CSI는 1926년에 CRC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인 기관으로 후원을 받는 단체로 지명되었는데, 마침 1926년은 Calvin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했다. 칼빈 신학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빈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였다.

23)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Synod 1932 (Grand Rapids: 1932), 26.

24) Ibid., 26.

이 최대한의 힘을 다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결정하고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 재정 문제는 1930년대에 처음으로 수면에 오른 이슈이었으나 30년대의 문제로만 남지 않고 오늘 날 까지 계속해서 난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이슈였다. 즉 교회의 직분자로 선택될 때의 자질의 문제를 거론할 때 기독교 교육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직분 선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후보자가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일이 생겼다. 이것에 대해서 총회는“기독교 학교를 후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직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고려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²⁵⁾

그러던 중 1955년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Basic Commitments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획기적인 연구보고서가 총회에 상정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1950년대의 CRC교단의 기독교 학교 운동에 관한 방향과 원리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도 1955년 이전에 나왔던 기본적인 기독교 학교 운동의 원리들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세속화 되어가는 사회에 반대하여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든지, 언약사상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학부모들의 일차적 중요성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그 전의 내용들과 달랐던 점은 가정과 교회와는 달리 학교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창조하신 적이 없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대한 헌신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기관(social institution)이라고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학교 자체는 신성(sacred) 하지 않지만 교육은 신성하다”는 것이다.²⁷⁾ 학교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로 근접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195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20세기 초 약 50년간 CRC 교단의 기독교 학교 운동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해 오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전 시대를 이어서 두 번째 기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주 되심과 언약 사상은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 운동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포커스를 맞추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즉, 기독교 학교를 교단이 지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떤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확증하기 위한 일반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그러한 기독교 학교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범위를 좁혀 두고 있다. 물론 이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 까지도 포함하는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언약 사상에 의해 기독교 교육 자체는 의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지만 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과 필요와 환경에 맞게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열어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20세기 말: 재정 문제

25)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Synod 1934 (Grand Rapids: 1934), 167-168.

26)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Synod 1955 (Grand Rapids: 1955), 195.

27) Steven J. Koster, *The CRC and Christian Day Schools: A Short History of Principles and Practice*, 53

이제 20세기 말에 접어든 시점에 있어서 CRC교단의 기독교 운동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씨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재정문제이다. 이 재정문제는 20세기 중반에서도 이미 다루어진 문제였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즉 누가 기독교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부담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가 등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된다. 재정문제가 토론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1959년 한 교회가 “교사 선발 장학금(Teacher Recruitment Scholarship)”을 교회 예산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관해 총회가 내린 결정을 통해서 시작된다. 총회가 내린 결정은 매우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 결정은, “교회는 유기체(organism)로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가 조직체(organization)로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²⁸⁾ 다르게 표현하면 조직체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필요를 위해서 현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기독교 학교의] 교사 선발 장학금이라는 항목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의 본질에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성격의 항목이기에 교회 예산의 항목으로 넣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었다. 이 결정을 통해서 CRC 교단은 학교라는 구조와 교회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게 된 것이다.

거리를 좀 더 멀리 두게끔 하는 결정을 내린 데 비해 10년 뒤인 1970년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관점이 부상하였는데, 그것은 학교를 위한 재정 지원이 교회의 전도 사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 교회가 도시 중심의 빈민가에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위해 교단 내에 있는 국내 선교부(Board of Home Missions)가 재정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국내 선교부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는 선교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와 CSI(국제 기독교 학교 연합회)와 교단 국제 구제부가 담당해야 할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이 거절에 대해 총회는 입장을 뒤집어 국내 선교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교육은 구제 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전도 사역으로 보아야 하며, 특별히 도시 중심의 빈민가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를 돕는 것은 더 더욱 전도사역의 성격이 짙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²⁹⁾ 총회는 기독교 교육을 후원하는 것은 구제 사역이 아니라 설교와 전도의 역할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보면 기독교 학교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구제인가 혹은 선교인가 라는 문제로 제기 된 것은 처음 있는 결정이었다. 1959년에 이미 학교는 교회에 대해서 순수하게 유기적 존재는 아니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교회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1970년에 들어와서 내린 결정은 학교가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상관없는 외부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86년에 와서도 같은 내용의 결정을 총회가 재 확인 한 것을 보면 계속해서 학교는 교회의 선교적 차원에서의 사역으로 보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28)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Synod 1959 (Grand Rapids: 1959), 58.

29) Steven J. Koster, 56.

30) 1986년 총회를 통해서도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의 관계가 전도의 성격을 띤 사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총회가 결의하게 된 일이 생겼다. 폐교직전의 기독교 학교를 교회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학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물론 부모가 학교 운영

세 번째 기간에서는 재정 문제가 교회와 학교의 관계에서 CRC의 교회헌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더욱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는 교회와 너무 가까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의해서 모든 학교의 행정에 필요한 재정을 보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먼 관계는 또한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 사역적 관점으로 학교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도 CRC는 재정 문제가 여전히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2001년에는 다른 노회가 동시에 똑 같은 안건을 총회에 올려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연구를 총회가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며 특별히 재정 문제로 인해서 그 강조가 약해 졌다고 하는 염려 때문이다.”³¹⁾ 실제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로서는 다른 공립학교들로부터의 고립되는 결과와 소비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부모들로부터 재정 지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02년에는 총회가 인정한 것은 비록 공립학교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의 의무의 일환으로 공립 학교를 후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관점과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와 같은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은“단순히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세우는 것이지 목적은 아니며 다른 학교로부터 우리의 학교가 고립되는 것 또한 문제이지 유익은 아니며, 이런 고립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³²⁾ 그 전에는 공립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또한 “그리스도가 결핍된” 세속주의의 요람이라고 혹평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그 전 세대와는 차이가 큰 변화임을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2003년에 나온 보고서에는 기독교 교육을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전통적 개혁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선교의 중요성과 맞먹는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서로 상반된 보고서들이 몇 년 사이에 총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CRC 교단 내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가는 오늘날 CRC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의 몫인데 이것은 150년 전에 북미 대륙으로 네델란드에서 이민 온 그들의 선조들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V. 나가면서

CRC 교단은 기독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난 역사를 통해 정립해 왔는데,

그것은 기독교 교육은 언약적 헌신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에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사립학교의 엘리트주의, 학교를 운영하는 부모의 상대적 중요성의 애매모호함, 각 지역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의무 등에 교단

을 해야 하는 것이 원리이지만 교회학교(Parochial schools)라도 교회의 선교사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Synod 1986 (Grand Rapids: 1986), 495를 참조하라.

31) Steven J. Koster, 58

32) Christian Reformed Church, Acts of Synod 2002 (Grand Rapids: 2002), 88.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교단 내에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공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CRC 교단은 다양한 선택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혜롭게 찾아가야 하겠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역사적 개혁주의적 원리들을 잃지 않은 가운데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CRC 교단의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하고자 한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가 당면해 왔던 수많은 도전들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 정부의 통제, 가치 중립 교육 이슈, 정부나 혹은 교회로부터의 재정 지원문제, 기독교 학교의 근본적인 원리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항하는 세속주의 원리 등의 장애물을 넘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난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을 이겨 나가기 위한 기초는 첫째로 CRC 교단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통전적 기독교 교육에 강한 헌신을 가져야만 한다. 어려운 난관도 강한 헌신으로 이겨 나아왔음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약 150여 년간 CRC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자신들을 희생하며 세상과 싸워 왔고 자신들의 상황을 극복해 왔다. 한국 교회가 매우 위험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몇 시간에 불과한 주일날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로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음주의가 매우 필요하지만 그 한계를 넘는 그래서 진 삶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는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³³⁾ 그래서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1932년에 기독교 학교 교장 클럽에서 보낸 편지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한국 교회는 현재의 기독교 학교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즉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이원론적 삶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입시라고 하는 이슈를 성경적으로 극복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개혁해 나가는 오늘날의 헌신이 없이는 내일의 한국교회는 희망적일 수 없다고 본다. 둘째로 한국의 교회가 개 교회 중심의 목회 방향을 벗어나서 한국 교회의 미래와 신앙 유산의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이 연합해야 한다. 많은 학교들이 구한말과 기독교 역사 초기에 우리 나라에 세워진 아름다운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한 교회가 한 학교 세우기 정도의 강력한 의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한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역이다. CRC 교단은 교단 전체가, 노회 전체가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각 교회가 연합하여 이 사역을 이루어 왔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여 교단이 하나가 되어 기독교 학교 운동을 이끌어 왔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합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되며, 뜻이 있어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도와 줄 수가 있다. 셋째로, 교회가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 정치, 문화 참여를 통해 기독교 대안 교육이 가능하기 위하여

33) 임경근, 『기독교학교이야기』 (SFC, 2009), pp. 50-60을 참조하라. 그 외에도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래의 저서들을 참고하라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전광식, 『기독교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그 원리와 실제』 (독수리교육공동체, 2006);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요구되는 자유와 환경이 허락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성도로서 살지만 주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질적인 이중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문화, 사회, 정치 개혁을 통해 기독교인은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개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딜레마와 난관을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기독교 학교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높은 사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평양 대 부흥 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상진 (2006).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임경근 (2009). 『기독교학교이야기』. 서울: SFC.
- 전광식 (2006). 『기독교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그 원리와 실제』. 경기도: 독수리교육공동체.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26). *Semi-centennial volume: Theological School and Calvin College, 1876-1926*. Grand Rapids: Tradesman Co.
- Christian Reformed Church. (1870). *Acts of General Classis, the General Classis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1857-1870*. Grand Rapids.
- Christian Reformed Church. (1879). *Acts of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1867-1879*. Grand Rapids.
- Christian Reformed Church. (1932). *Acts of Synod 1932*. Grand Rapids.
- _____ (1934). *Acts of Synod 1934*. Grand Rapids.
- _____ (1955). *Acts of Synod 1955*. Grand Rapids.
- _____ (1959). *Acts of Synod 1959*. Grand Rapids.
- _____ (2002). *Acts of Synod 2002*. Grand Rapids.
- Christian Reformed Church. (2003). *Church Order and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 Christian Reformed Church. (2001). *Index of Synodical decisions, 1857-2000*.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2001.
- Hyma, Albert and Van Raalte, Albertus C. (1947). *Dutch Settlements in the United States*.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 Koster, Steven J. (2005). "The CRC and Christian Day Schools: A Short History of Principles and Practice." *Stromata* vol. 46.
- Kromminga, John H. (1949).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 study in orthodox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Stob, George. (1955).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her schools." *Stromata*.
- Van Brummelen, Harro W. (1986). *Telling the Next Generation: Educat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n Calvinist Christians School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Van Dellen, Idzerd and Monsma, Martin. (1967). *The Revised Church Order Commentary: a Brief Explanation of the Church Order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Zwaanstra, Henry. (1973). *Reformed thought and experience in a new world: a stud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its American environment, 1890-1918*. Kampen: J.H. Kok.